

#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됩시다.(행1:6-11)

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, 다른 말로 해서 <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>이 되는 것을 말한다. 우리가 세계를 품는 이유는,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다!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나 혼자만 복 받으라고 구원하지 않으셨다. 오늘 본문에서도 승천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품을 것을 명령하신다. (8절) “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.” 세계를 품는다는 말씀이 어디 나오는가? 세계를 품는 것은, 바로 땅 끝까지 이르러 ‘복음의 증인’으로 사는 것이다.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...

## 1.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.

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다. 오로지 예수님의 꿈과 비전은 자나 깨나 하나님의 나라, 하나님의 나라였다.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모른 채, 마지막까지 엉뚱한 질문을 한다. (6-7절) “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쭙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,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” 세상 나라는 너희가 신경 쓸 것이 아니라,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! 세상 나라에 메여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고 살라고 말씀하신다.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들어갈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는다.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땅에도 여호와와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자.

## 2. 자신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.

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갖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. 진정 세계를 품으려면, 삶의 영역을 세계로 넓혀야 한다.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말고, 땅 끝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했다. “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!” 예루살렘은 당시 제자들에게 익숙한 장소였다. 편안한 장소였다. 그러나 그들은 그곳을 벗어나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했다. 이후에 사도행전의 역사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라고 할 수 있다. 그러면서 그들이 밟고 가는 곳마다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고,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.

예루살렘이 장소적인 개념만을 의미한다고 보지 않는다. 예루살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일 수 있다. 부정적인 사고방식일 수 있다. 내게 익숙한 생활방식일 수 있다. 이것들을 깨고 벗어나야, 우리는 진정 세상을 품고 세상을 축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.

## 3.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.

세계를 품고, 세상을 축복하는 일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.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다.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.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약속하셨다. (8절) “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.”

예수님이 제자들에게 “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”고 말씀하셨을 때, 중동 지역에서 가난하게 살던 그 소수의 제자들은 당황했다. 걸어서 가야 하나? 짐승을 타고 가야 하나? 그것이 당시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었다. 또 바다를 건널 배도 없었기 때문에, 전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장벽들이 매우 많았다.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교통수단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, 성령을 보내주셨다! 실제로 제자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, 불같은 성령, 바람 같은 성령께서 각 사람위에 충만히 임하셨다. 그리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나아갔다. 우리가 세상을 품고 헌신하고자 하면, 성령이 역사하시고 도우신다.

##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됩시다.(행1:6-11)

1. 마 음 열 기 - 더위를 이기는 나만의 노하우는?

2. 경배와 찬양 - 찬송가 505장(온 세상 위하여)

###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

(원제 : 비전 / Vision)

고형원

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대

하 내님의 사랑 그 아들로 주셨네 그 의피로 우린 구원 받았네

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

각 나라와 족속 백성방언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드리네

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김없이 있도다

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김없이 있도다

3. 말씀 나누기 - 먼저 성경본문과 설교요약을 읽으세요.

- (1) 성경본문과 주일설교를 듣고, 특별하게 다가온 구절이나 은혜 받은 교훈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.
- (2) 지난 주간에는 ‘세계선교대회’가 있었습니다. 파송선교사님들 그리고 현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주일예배를 드리면서 느낀 것을 나누어 봅시다.
- (3)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내가 넓혀야 할 지경은 무엇입니까?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나의 예루살렘이 있다면 나누세요.

#### 4. 사역나누기

- (1) 오늘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 기도하고, 축복해 주세요.
- (2) 세종시에 분립개척하는 ‘세종중부교회’와 ‘설립예배’(7.7)를 위해 기도합시다.
- (3) 마칠 때, 다음과 같이 말하며 인사합시다.

“형제님(자매님)을 보니,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.”